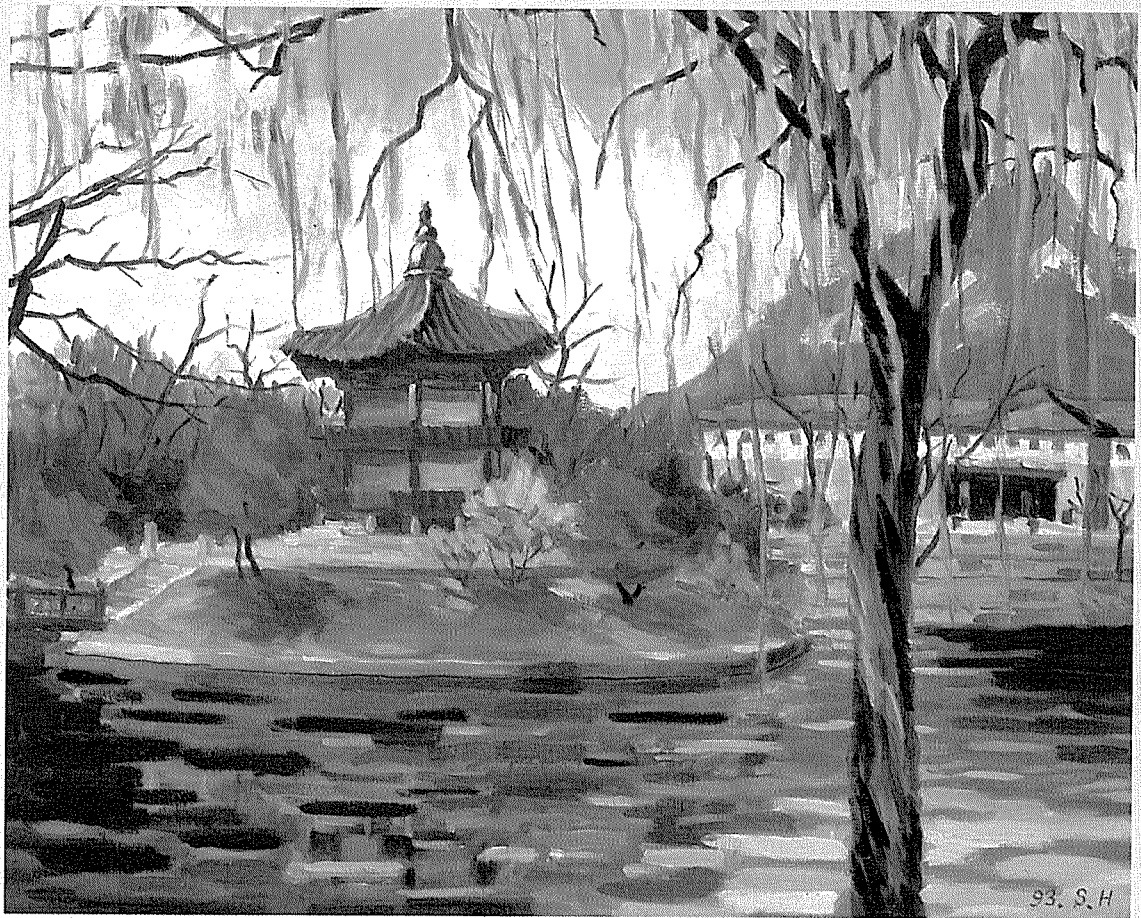




정물 1995, 안일성 건축사사무소 아키안

크게 숨을 들이켜도 갑갑하기만한 가슴
 끝없는 암흑의 터널을 지나 왔건만
 찬란한 태양의 빛줄기는 요원하기만 하다.
 둘러 쌓인漆黑 공간을 벗어나
 맑고 투명한 꽃향기를 그리며
 숨을 들이켜 본다.



향원정의 봄(72.7×60.6), 김석환/터·울건축사사무소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모습은 시시각각 변한다. 생물 뿐 아니라 그 생명의 파동이 투영된 공기의 빛깔까지도 달라진다. 진달래의 주홍빛깔도 금방 움터나온 새싹의 연록빛깔도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찰라의 모습들 일 뿐이다. 따라서 자연의 모든 사물은 고정된 모습을 가질 수 없고, 인간은 사물을 표현할 수가 없다. 나의 그림은 풍경의 기호적 표현일 뿐이다.